

MZ 취향저격 스트릿 브랜드 '총집합'

# 현대百, 자체 편집숍 '피어' 확대

신촌점·중동점·더현대서울 이어  
무역센터점에 73평 규모로 오픈  
메종 마르지엘라 등 브랜드 30개

영골프 등 스포츠 카테고리 추가  
내년 판교점·대구점 등 오픈 계획

현대백화점이 자체 스트릿 편집숍 '피어(PEER)' 매장을 확대해 MZ세대 문화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난다.

'피어'는 스포티앤리치·디스이즈네버댓·JW앤더슨 등 30여 개 국내외 스트릿 패션 브랜드를 비롯해 스케이트보드·리빙 소품 등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50여 브랜드가 총망라된 편집숍이다.

현대백화점은 신촌점·중동점·더현대서울에 이어 무역센터점 6층에 자체 스트릿 패션 편집숍 '피어' 4호점을 오픈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무역센터점에 문을 여는 '피어' 4호점은 741㎡(약 73평) 규모로, 신(新)명품이라 불리는 프랑스 브랜드 '메종 마르지엘라', 미국 스트릿 브랜드 '슈프림', 영국 컨템포러리 브랜드 '스튜디오 니콜슨' 등 30여 브랜드가 들어선다.

특히 편의점 콘셉트의 신개념 라이프스타일 스토어 '나이스웨더'가 숨입숍으로 들어선다. 지난해 3월 서울 신



더현대서울에 오픈한 피어3호점 전경.

/현대백화점그룹

사동 가로수길에 첫 매장을 오픈한 '나이스웨더'는 직접 큐레이팅한 식품료(F&B) 상품과 패션·리빙 소품 등을 판매하며 MZ세대들의 두터운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올 2월에는 더현대 서울에도 매장을 오픈하면서 MZ세대들 사이에서 꼭 방문해야 하는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다. 현대백화점은 올 하반기 중으로 나이스웨더와 협업을 통해 피어 매장에서만 판매하는 단독 상품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밖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2030 골프 인구를 겨냥해 '액티브 스포츠' 카테고리를 새롭게 구성했다. 르소넷·포트메인·오벨 생트로페 등 신생 영골프 브랜드 10곳의 상품과 MZ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패션 브랜드 '마르디 메크르디'의 골프 라인도 오프라인 최초로 선보인다.

현대백화점 측은 이번 '피어' 4호점을 시작으로 내년 판교점·대구점 등에 '피어' 매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피어' 매장 확대에 적극 나서는 것은 신규 고객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 2019년과 2020년 피어 매장을 각각 선보인 신촌점과 중동점 유프렉스의 경우, 오픈 후 1년간 고객수가 점포별로 오픈 직전년도 대비 50% 이상 늘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피어는 MZ세대에게 익숙한 SNS 인기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선보이면서 영고객을 끌어들이는 신선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 '피어'를 2030 고객을 겨냥한 단순 상품 판매만이 아닌 MZ세대와 트렌드·문화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홈플러스, 하반기 공채에 3900명 몰려

예상 지원 인원보다 4배 넘어  
전 부문 두 자릿수 경쟁률 기록

'사람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홈플러스의 메시지에 청년들이 응답했다.

홈플러스는 최근 접수를 마감한 하반기 채용 연계형 대졸 신입 인턴사원 선발 전형에 39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지원서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채용 한과 속에서 11년 만에 세 자릿수 규모의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했는데, 당초 예상 인원의 4배가 넘는 인원이 지원서를 접수한 것이다.

홈플러스는 올 하반기 채용 연계형 인턴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하며 올해에만 100명 이상의 세 자릿수 규모로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이후 홈플러스의 대졸 인턴십 정규직 전환율은 96%에 달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

상품 소싱을 담당하는 바이어를 선발하는 상품부문을 비롯해 모바일사업

부문, 마케팅부문, 몰(Mall)사업부문, 경영지원부문(재무/인사/대외협력)등 전사에 걸쳐 세 자릿수 규모의 채용 연계형 신입 인턴사원을 선발하는 이번 채용전형에 무려 3888명의 청년들이 원서를 접수했다. 지원자가 몰리면서 경쟁률도 전 부문에 걸쳐 두 자릿수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홈플러스의 이번 채용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공익적인 목적을 담고 있다.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ESG 경영을 강화해온 홈플러스로서는 올해 대규모 공개채용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홈플러스는 2019년 무기계약직사원 1만42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홈플러스를 '전체 임직원 중 99%가 정규직인 기업'으로 조성, ESG 경영의 모범 사례를 남긴 바 있다. 이는 최근 4년 내 민간부문 단일 기업의 최대 규모 정규직 전환 기록으로도 남아 있다. /신원선 기자

# 남양유업, 매각 결렬... 주총서 안건 부결

한앤코 경영진 선임 등 모두 철회

남양유업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모펀드 운영사인 한앤컴퍼니 측 인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모두 부결시키면서 매각이 결렬됐다.

14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열린 임시 주총에는 집행 임원제도를 도입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윤여을 한앤컴퍼니 회장 등을 신규 이사로 선임하고 이길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감사실장을 감사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올라왔다.

정관 변경과 신규 이사 선임은 한앤컴퍼니 측에서 올린 안건이다. 이 안건은 53.0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을 비롯해 특수관계인 등 대주주들의 반대로 인해 부결됐다. 한앤컴퍼니에 회사를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날 주총에는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 LKB앤파트너스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한앤컴퍼니 측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총의 결정에 따라 홍 회장을 비롯

해 홍 회장 모친과 장남, 차남 등 기존 사내 이사진은 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오너 리스크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남양유업은 다음달 열리는 임시 주총에서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다음달에 예정된 주총관련 주요 사안들은 논의 중인 가운데 지배 구조 개선을 비롯한 현재 남양유업 임원진의 변동 및 이사회 재구성 등 실질적인 내용들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경영 안정화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10월 안에 진행할 예정으로, 안건 및 시기는 논의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재공시를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10일 남양유업은 이달 27일 기준으로 주주명부 폐쇄 기간을 설정했다고 공시했다. 주주명부 폐쇄는 주총을 앞두고 일정 기간 주주명부 기재 사항 변경을 정지하는 것이다. /신원선 기자



# 미드처럼 집 꾸며볼까... 위메프, 기획전

'포인트 홈테리어' 추가 할인쿠폰  
스탠드·러그 등 인기 아이템 마련

위메프는 적은 비용으로 인테리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포인트 홈테리어' 기획전을 열고, 최대 15% 추가 할인쿠폰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집 꾸미기에 관심이 높아진 '집꾸족'을 위한 포인트 인테리어 상품을 모아 큐레이션했다.

이 기획전에서는 최근 인테리어 핫트렌드로 떠오른 '미드 센추리 모던'과 '내추럴 무드' 아이템을 집중 구성했다.

'미드 센추리 모던 인테리어'는 간결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원색의 가구와 소품들로 포인트를 준다.

미국 드라마나 영화 속 은행 책상에 흔히 등장하는 초록 스탠드를 모티브로 만든 '뱅크 단스탠드'는 2만9900원, 카르텔 디자인을 오마주한 '크리스탈 포터블 스탠드'는 3만5900원, 모듈가구에 바퀴가 달려 실용성까지 더한 '모듈 강화유리 컬러포인트 트롤리 수납장'은 15만9000원에, '라메종하우스 릴리파스텔 투명한자'는 4만8000원에 판매한다.

이밖에 ▲인테리어포스터 ▲워셔블 포인트 러그 ▲플렌스테드 인테리어

모빌 등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한 아이템을 할인가에 판매한다.

자연 친화적인 '내추럴 무드' 인테리어 아이템도 선보인다. 천연 대나무 소재 제작해 이국적이면서도 아늑한 분위기 연출이 가능한 '오드 단스탠드'를 3만2500원에, 공기정화 식물로 유명한 '몬스테라'는 5500원, 수경재배로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스킨답서스'는 6700원에 판매한다.

기획전에서 소개하는 모든 아이템은 상품별 최대 15% 추가 할인쿠폰을 제공, 가을맞이 홈테리어 최신 트렌드 상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쇼핑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 SSG푸드마켓 100년 숙성 발사믹 식초 판매

이색 프리미엄 선물세트 선보여

이마트의 프리미엄 슈퍼마켓 SSG푸드마켓(청담, 도곡점)이 이색 프리미엄 추석 선물세트 판매에 나섰다.

이마트는 SSG푸드마켓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1일까지 이탈리아의 명품 발사믹 식초 '주세페 주스티 리저브 큐빅 발사믹 식초 100년산(100ml, 이탈리아산·사진)'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제품은 24캐럿 금장 라벨이



장식된 고급스러운 나무 상자에 담겨 판매된다.

일반적으로 '발사믹 식초'란 이탈리아 북부 모데나 지방의 포도 품종을 전통 기법을 통해 만든 고급 포도 식초를 뜻한다. 숙성 기간이 길어질수록 깊은 향기와 풍미

를 가지게 된다.

그 중에서도 '주세페 주스티 리저브 100년산'은 4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이탈리아의 명가 주세페 주스티 가문이 17세기부터 내려온 전통 제조 기법을 통해 한정 생산하는 제품이다. 매년 100여개 한정 수량만 추출되며, 국내 반입 물량이 10~20개에 불과할 정도로 구하기 어려운 최고급 발사믹 식초다.

기존 SSG푸드마켓에서는 주세페 주스티 발사믹 식초 20년산부터 최대 50년산까지 판매해왔으나, 100년산 판매는 이번 추석이 처음이다.

/신원선 기자

# "명절음식 등 한가위엔 GS25와 함께하세요"

모듬전 등 담은 추석 도시락 선배  
안전 상비약품 재고 넉넉히 준비

편의점 GS25가 명절 연휴 기간 문을 닫는 식당, 약국, 은행 등을 대신해 사회 기능망 역할을 한다.

GS25는 15일 추석명절을 맞이해 혼추족들을 위한 '풍성한한가위보내소' 도시락(이하 추석 도시락)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추석도시락은 부드러운 버섯 소불고기와 단호박 은행 영양밥에 수제 모듬전 4종과 나물 등 9찬으로 구성됐다.

GS25에서 올해 설에 선보였던 새해복 많이 받으소서 도시락의 매출이 전년도

설 명절 도시락 대비 38% 신장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명절 연휴 기간 귀향을 하지 않는 고객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가까운 GS25에서 알차게 명절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풍성한 추석 도시락을 기획했다.

아울러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중에 평소 대비 5배 이상 매출이 발생하는 소화제, 해열제 등 안전 상비약품 14종의 재고를 충분히 구비하고 현금인출기(ATM·CD) 점검을 사전에 마쳐 365일 불을 밝히는 지역 사회의 응급 구호 센터로서의 역할과 긴급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